# 천국비밀요원

## (고전4:1~5)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비밀요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정보요원들이 있잖아요?
이 정보요원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화이트요원이 있고 블랙요원이 있습니다.
화이트요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외국 대사관이나 공관 같은 데서 일하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요원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블랙요원은 자신이 국정원이라든지 하는 정보기관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정보활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그 해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또, 그 해당국에 떠돌고 있는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외에, 해당국가에서 기밀로 부치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캐내기 위해서 그 해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도 자행합니다.
이걸 블랙요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secret agent, 스파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블랙요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비유로 등장시키는 이 정보요원들의 공통점은 블랙요원이든 화이트요원이든 간에 해당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목으로 정한 천국비밀요원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천국비밀요원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정보원을 이북에 보내듯이,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에 보내듯이 그렇게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정보원들입니다.
근데 파견되어질 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 세상 정보를 수집하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보낸 파견국인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에서 누설하려는 자들이 바로 천국비밀요원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천국비밀요원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파견되어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파견되었다고 하는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하면서 세상의 비밀을 캐내기 때문에 천국비밀요원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서 누설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비밀요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비밀요원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비밀요원이 누구냐?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 내의 분파문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비밀요원이라는 얘기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천국비밀요원들이겠지요.
그 천국비밀요원을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누설하고 다니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천국비밀요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교회내의 분파문제와 연관된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분파의 부당성을 참으로 집요하게도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내의 분파문제를 부당한 것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사도바울은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개개인들인 교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판단이라는 게 원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속성 자체가.
판단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점을 느끼고, 문제점을 느낀다는 것은 내게 기준이 있

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느끼고 내 스스로 답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반(反)신앙적, 하나님에 대한 배반적 행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배반적 행위의 결과로 분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볼로가 문제점을 느끼고 정답을 내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자라고 느껴서 좇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원죄의 내용이자 뿌리가 되는 판단이라고 하는 이 속성으로부터 발전되어서 교회분파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분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완전히 반(反)그리스도적인 입장, 반(反)십자가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고 그럼으로써 이 분파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 등의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 것인데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따르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소속된 자라는 소속감을 갖는 게 부당한 것이라면,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천국비밀요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1절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흔히 듣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앞의 3장 21절에서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교회 목사님도 내 것입니다, 내 거라는 의미는 그분의 모든 활동은 나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라서 내가 그를 추종할 수는 없어요, 그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속해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지만 내가 목사님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 속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해야 됩니까?
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하는 모든 활동, 사도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말씀사역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서 내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지만, 내 일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내 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분의 모든 활동이 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 일꾼이거나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왕궁에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왕비가 젖을 물리고 기를 수가 없으니까 유모를 하나 찾아서 왕궁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돌보며 키웁니다.
이때 유모의 모든 활동은 갓난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유모니까 갓난아기의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유모가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갓난아기 때문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왕비 때문이에요.
즉, 왕비에게 충성하느라고 갓난아기에게 정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2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 당사자는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그분의 모든 활동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 종이고 내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은 충성을 다짐할 것인데, 충성을 다짐한다는 얘기는 갓난아기에 대해 충성을 다짐한다는 뜻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맡긴 왕비에 대해 충성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왕비가 갓난아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왕비의 갓난아기 사랑에 의해서 갓난아기에게 정성을 다 한다는 얘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인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작게 여긴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외국에 가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보를 캐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당사국 입장에서 보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이 정보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해당국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교인 자신들의 판단과 비판과 칭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겁니다.
오직 자국의 평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평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교인들에게 해요,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으면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판단하면서 교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反)그리스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입이 히죽해지고 목사님을 싫어한다고 뾰로통해진다고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교인들의 일꾼입니다.
칭찬에 좌우되지 말고 비난에 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만을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갓난아기가 아프면 아무리 안 먹겠다고 뿌리치고 발버둥 쳐도 그 갓난아기 같은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쓴 약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교인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드린 의도를 오해해서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육적인 소원에 부합한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이 칭찬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일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짓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분별의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의 표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학에 들어가서 연세대 배지를 달고 다닌다면 그 배지가 그 사람이 연세대 학생인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또 내가 LG나 한화라든지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배지를 달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저기 다니는 직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알게 하는 배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 십자가 말고는 알 게 없다는 얘기에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기사를 일으키신 것 자체가 십자가로 인간의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러므로 십자가 이외의 것을 입에 담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제목과 부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복음사건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분의 사역 전체를 뜻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가 비밀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잖아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번쩍번쩍 누렇게 빛나는 금관악기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존재가 비밀이라는 얘기에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비밀이랄 게 없어요, 그 나팔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존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비밀입니다.
이름은 다 알지만 그 존재를 우리 마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기 싫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십자가의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이 모습에 담아서 전하고 저 모습에 담아서 전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십자가를 붙잡을 것을,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자극하고 강조하고 요청함으로써, 마음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나라로 올라간 마음속에 성령님이 담겨지면서 여호와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켰던 존재가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얘깁니다.
그 존재가 마음에 느껴질 때, 즉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만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확신과 느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비밀리에 감춰졌던 그 존재가 내 마음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내 눈에 보이는 가족보다도 더 앞선 현실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존재가 느껴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만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제일 먼저 마음으로 느끼다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외아들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만물이 다 내 것이 되요.

만물이 다 내 것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만물로 채워진 세상 속에서 근본적으로 부자 될 생각이 없습니다, 무얼 이루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이니까, 다 내 건데 무얼 또 이루겠어요?
100만 원이 내 것인데 그 중에서 만 원을 얻겠다고 세상에서 평생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내 것이 된 사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스러운 존재를 십자가에서 마음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 것이 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만물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좋다, 불편하다, 세상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런 가치판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려나가시는 계획 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표현일 뿐입니다.
부자도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이 세상적인 가치판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내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부자가 되도 부자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뜻 중에 어느 한 구간의 뜻으로서 이 세상에 표현된 것뿐이라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실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만물이 내 것이기 때문에.
실패로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하는 현상이 내게 하나님 뜻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만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리고 벌거숭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만물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육적인 소원을 따라 성공해야지, 부자되어야지, 높아져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이 아니고, 부유해도 부자가 아닌 겁니다.
이미 마음은 더 채워질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된 상태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일꾼이 제대로 된 일꾼이냐 아니냐 하는 배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알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로서 십자가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이 천국비밀요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할 뿐이고, 이들의 잘잘못의 판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결정되며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나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분별해서 십자가가 얘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늘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얘기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눈치를 보고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말들이 복음이 그 말씀에 종속되도록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므로 떠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국비밀요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들이 진짜 천국비밀요원인지를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장이 그릇됨이 없게 하시고, 오직 바른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사 하늘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으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